

정원 디자인

Garden Design

창을 넘어 보다

가는 길은 멀어도, 돌아오는 길은 좀 더 가깝기를
가는 길은 험맣어도, 돌아오는 길은 좀더 쉽기를
가는 길에 가져갔던, 무거움이 돌아오는 길에는 비워져 있기를
정원으로 가는 길은 내게 늘 이런 기대다.



정용현
wjddydgus77@naver.com

김서영
buroak4864@naver.com

이호진
ljh1395@naver.com

창을 넘어 보다

독도에만 살고 있는 식물을 아시나요?

혹, 그 식물의 이름이 읊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안에 일본 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다면...

우리 역사의 아픔을 다시 돌아보고

그 너머의 것들을 마주하기 위해

이제는 창을 넘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꽃들, 그 이름 속에는 슬픈 역사가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의 이름은 단순히 식물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등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식물의 이름 속 일제의 잔재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창을 넘어 보다 라는 정원은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자 설계하였습니다.

한옥의 창을 매개로 삼아 좁은 시선을 넘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안에 고유의 이름을 잃은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작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지속시키고자 하였습니다.



事必歸正
사필귀정

모든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나는 우리나라 식물입니다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한국 자생식물 4천73종 가운데 이름에 ‘제페니스’, ‘다케시마’, ‘나카이’ 등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식물이 315종에 이릅니다.

이는 식물 이름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고 그렇다 보니 식물이름에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섬초롱꽃 *Campanula takesimana* Nakai – 일본어로 주인없는 땅이라는 단어 ‘takesimana’

개나리 *Forsythia koreana* Nakai – 일본식물과 견주어 비하에 표현을 사용한 ‘개’

노인단풍 *A Korean maple* – 한국단풍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름 ‘노인단풍’

이러한 식물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창을 넘어 보다’의 정원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국립수목원과 같은 기관도 고친 영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섬기린초
Sedum takesimense Nakai
Sedum dokdo Nakai



단풍나무
노인단풍 = A Korean maple
참단풍 = A Japan maple



섬제비꽃
Viola takesimana Nakai
Viola dokdo Nakai



노랑붓꽃
Iris koreana Nakai



창을 넘어 우리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셨나요?

05. 정원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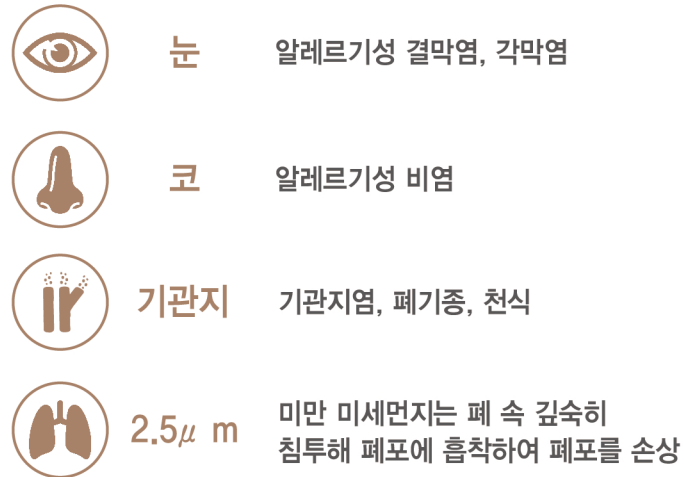
Replace

지금 이 작품은 미세먼저를 저하시 킬 수 있는 공기청정식물을 반려식물로써,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취미를 만들어주고 SNS를 즐기는 우리들에게 자신만의 감각을 뽐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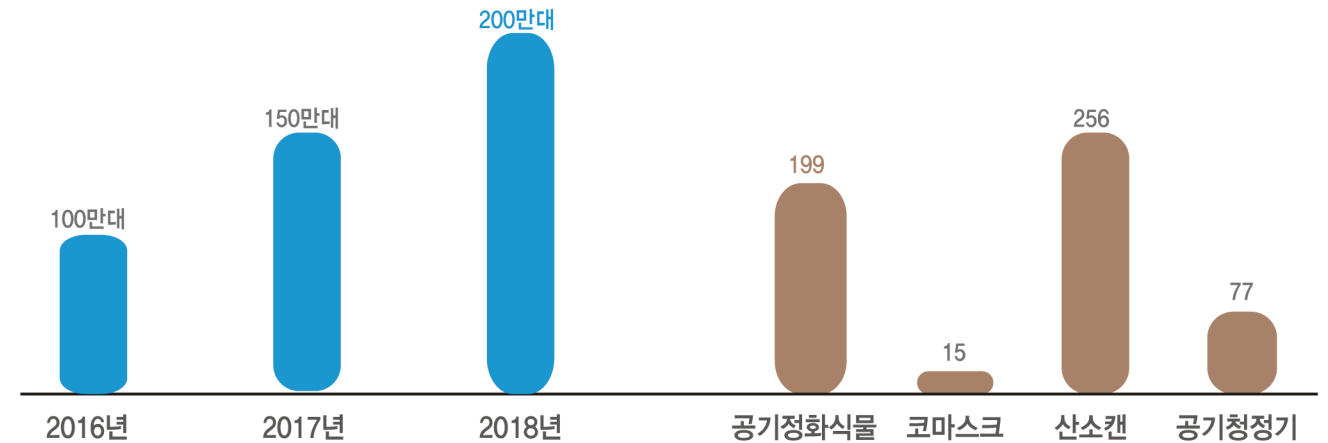


Prologue & Background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전망



미세먼지는 인체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상품 판매 증가율을 보면 공기정화식물이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공기청정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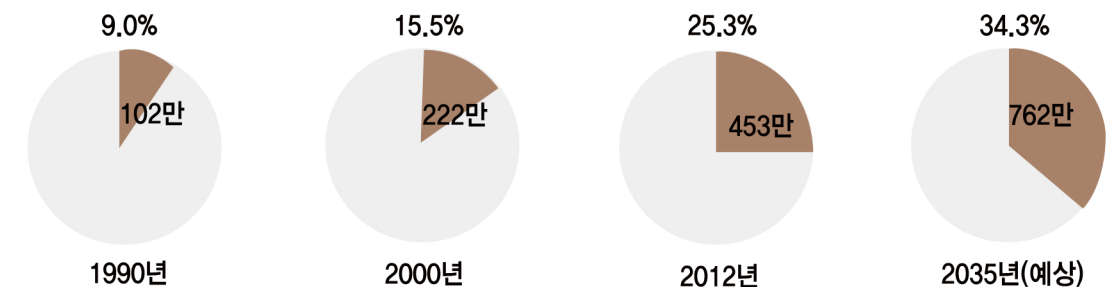
공기정화식물의 이점



Target

우리나라 1인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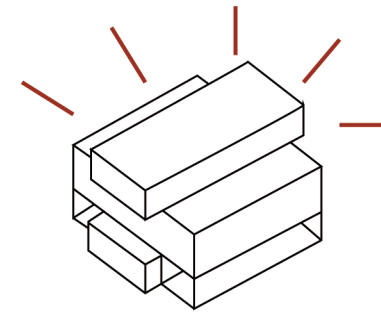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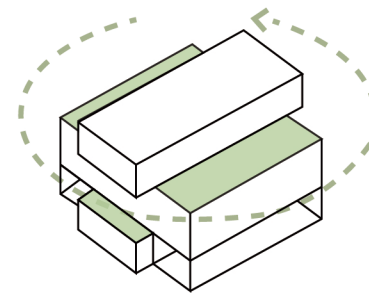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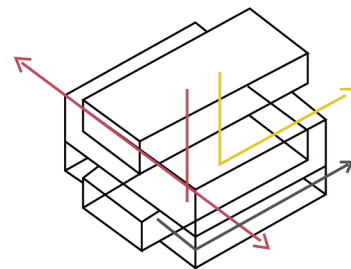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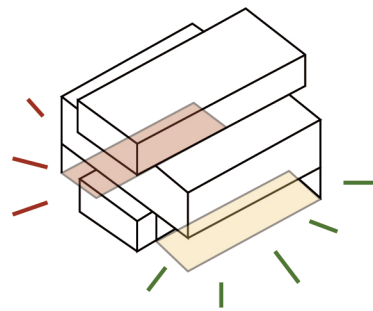
1인 가구수는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 혼자 사는 집에 고가의 공기 청정기 구매 보다는 본 작품과 같은 실내조경이 보다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1인 가구를 주 수요자로 선택하였다.



Concept

Replace

작품의 주제이자 제목인 REPLACE 는 공기청정기를 대신하는 식물을 이용하여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바쁜 현대인들을 서포트해주는 작품이다. 또한 버려지는 나무 팔레트를 이용한 작품이다. 플라스틱 팔레트와 달리 나무 팔레트는 버리는 것 또한 비용이 들고 내구성으로 인해서 한두번 이용 후 버려지게 된다. 나무가 한두개만 부러져도 버려지는 이 나무를 UPCYCLE을 통해서 모듈화된 식물혹은 수납공간이되는 용기로 대체된다.



Example



3LINE



5LINE

Display



